

‘도로위 무법자’ 화물차 위험한 탈법 질주

♣. 지난달 19일 오후 5시40분께 여수시 해산동의 한 교차로. 화물차 운전기사 김모(39)씨가 몰던 22t트럭이 앞서가던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고 100m를 밀어부쳤다. 승용차 운전자 김모(34)씨는 중상을, 아내(33)와 딸(3)은 그 자리서 목숨을 잃었다. 화물차 운전기사는 혈중알코올 농도 0.163%의 만취상태였다.

♣. 지난 4월7일 오전 7시34분께 강진군 신월면 신흥마을 입구 앞 도로. 화물차 운전기사 조모(53)씨가 몰던 9.5t트럭 적재함에 실려있던 미역 봉지가 도로 위로 떨어졌다. 뒤따라던 그랜저 승용차 운전기사 김모(63)씨는 떨어지는 물건을 피하다 도로 양복을 들이받았다. 김씨는 그 자리서 숨졌다. 화물차 운전자는 출발 전 적재물을 제대로 고정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운전에 과적, 적재 불량, 불법 구조변경 등 화물차 운전자들의 온갖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으면서 애꿎은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사고 치사율이 높은 화물차

불법구조변경·음주·과적 적발 건수 크게 늘어 여수 일가족 참변 등 교통사고 치사율도 높아



광주·전남 올해 상반기 보니
1289건 화물차 사고 1715건 과적차량
140건 음주사고 831건 불법구조변경

의 불법 운전 행위로 인한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당국의 철저한 단속과 함께 관련법 정비 등이 절실하다.

◇도로 위 무법자…음주운전·불법변경까지 = 23일 교통안전공단 호남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올 상반기 광주·전남에서 발생한 8733건의 교통사고 가운데 화물차 사고(화물차 사고)는 1289건으로 전체의 14.7%를 차지했다. 눈에 띄는 점은 화물차 사고 비율이 전체 교통사고의 14.7%

인대도 사망자(63명) 비율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249명)의 25%를 기록한 점이다. 화물차 사고의 경우 목숨을 잃을 경우가 그만큼 높다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사실상 도로 위의 흉기로 지목받는 화물차를 운전하는 기사들의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올 상반기 화물차 운전기사들이 광주·전남에서 낸 음주사고만 무려 140건.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1종 대형 운전면허 취소자도 같은 기간 986명이나 발생

하는 등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화물차 운전기사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음주 운전뿐 아니라 화물차 불법 변경 등 화물차 운전자들의 ‘일탈’ 행위는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올 상반기 경찰 등 단속이 단속한 결과, 불법으로 구조변경을 한 화물차 831대가 적발됐다. 경찰 등 수사당국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 결과, 6개월 사이 지난 한해 동안 적발된 불법 구조변경 화물차(142대)보다 6배나 많은 화물차량이 단속되는 등 운전기사들의 일탈 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다.

◇났다 하면 대형사고…과적·과박 부실도 =경찰청이 올 상반기 전국 고속도로 사망사고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화물차(51명), 승용차(45명), 승합차(9명), 기타(4명)로 화물차로 인한 사망사고가 유독 많다. 화물차 사고의 치사율(12.2%)도 승합차(7.2%)·승용차(3.8%)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과 국토관리사사무소 등이 지난 6월부터 17일까지 8차례 실시한 합동단속

(여수·광양·영암) 결과, ▲과적 25건 ▲안전띠 미착용 56건 ▲신호위반 20건 ▲교차로통행방범위반 7건 ▲안전운전의 의무반 4건 등 112건의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

이 기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화물차 운전자도 38명이나 됐다. 이 때문에 화물차 운전기사들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과적 화물차, 부실 고박 등 일반 운전자들에게는 흉기나 다름없다. 도로교통공단이 올해 5월까지 광주·전남 고속도로에서 적발한 과적 차량 단속건수는 175건에 이르고 부실 고박 차량 적발 건수도 158건에 달한다.

교통안전공단 박정관 과수는 “화물차 단속이 고속도로 통게이트 위주로 이뤄져 화물차 운전자들이 단속구역을 피해 위험한 질주를 하고 있다”면서 “당국의 적극적인 단속 뿐 아니라 운전자들 스스로도 의식 개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허위진술 용용…범법 부인 조폭 구속 공범 교도소 접견 녹취파일로 ‘딱 걸렸네’

공범에게 허위 진술을 용용하며 범행을 부인하던 조지폭력배가 검찰의 ‘세심한’ 수사에 꼬리를 뺐었다.

광주지검 형사 2부(부장검사 조기룡)는 23일 금은방을 털러다 비상벨 소리에 놀라 달아났다가 붙잡힌 혐의(특수절도 미수)로 광주 모 폭력조직 행동대원 백모(2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백씨는 지난달 9일 새벽 1시10분께 후배 2명과 광주시 남구 방림동 A금은방에 설치된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기로 잘라내고 귀금속을 훔치려다 비상벨이 울리면서 붙잡혀 미수에 그친 혐의다. 백씨는 그러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 구속된 공범과 달리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은 백씨의 가담 여부를 밝히기 위해 교도소 접견 녹취 파일을 분석, 구금된 공범 면회 과정에서 “교도소에 아는 사람이 많다”며 동료 조지폭력배 이름을 거론하는 등 겁을 주고 자신의 범행 가담 여부를 거짓으로 진술하라고 용용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허위 진술을 유도한 정황 등으로 미뤄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백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에서부터 발부받았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23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404호 법정. 광주지법의 ‘생생사법마당’ 프로그램의 하나로 진행된 모의재판에서 이석원(24·조선대 경영학과) 1년씨가 변호인 역할을 맡아 피고인인 상대로 신문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피고인 된 판사, 검·판사 된 대학생…‘역지사지 모의재판’ 눈길

광주지법서… 대학생들 ‘엄숙함 느껴’ 판사들 ‘생생한 경험’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합니다.”

23일 오전 광주지법 404호 법정에 백대현 광주지법 판사가 높은 법대가 아닌, 피고인 석에 섰다. 말다툼 끝에 함께 술 마시던 수강생을 때려 넘어지게 하면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서 테니스 강사 역할을 맡으면서다. 공유진 판사는 테니스 수강생인 피해자로 분해 법정에서 들었다.

이날 모의재판은 광주지방법원(법원장 김주현)이 국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 사법부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는 취지에서 기획한 ‘생생사법마당’ 프로그램 중 하나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 2013년부터 진행돼 왔다.

올해의 경우 다양한 법률 교육 및 실질적 법원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는 명목에서 현직 판사들이 피고인과 증인 역할을 맡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른바 ‘역지사지’ 모의재판으로, 백대현·공유진 판사

외에도 임술·유정훈 판사가 증인 역할을 맡았으며 펼쳐 눈길을 끌었다.

대학생 30명은 5명씩 6개 조로 나뉘어 사례의 재판을 진행하며 검사, 변호사로 나서 피고인·증인 신문에 최후 변론, 구형 등을 체험했다.

검사와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을 둘러싼 공방에 “기억나지 않는다”며 회피하려는 듯한 피고인을 향해 “어떻게 기억이 나지 않을 수 있느냐”며 매섭게 추궁하는 모습도 연출됐다.

학생들은 미리 받은 모의기록을 검토한 뒤 신문 상황을 준비하고도 추가 신문

을 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피고인, 피해자, 증인으로 나선 판사들의 노련함이 진땀을 흘리기도 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검사로 나선던 조성근(25·전남대 영어영문학과 3년)씨는 “법복을 입고 검사석에서 보니 법정에서의 엄숙함과 책임감이 무게로 느껴졌다”고 말했다.

재판장 역할을 한 김동욱 공보판사는 “대학생들은 생생한 재판을 체험하는 기회가 됐지만 판사들에게도 재판 당사자의 마음을 헤아려보자는 경향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희준기자 bhj@

영광 한빛원전 6호기 증기발생기 급수펌프 고장으로 출력 떨어져

영광 한빛원전 6호기가 증기발생기 급수펌프 고장으로 출력이 낮아졌다가 원상 복구 중이다.

23일 새벽 4시34분께 한빛 6호기 원자로의 출력이 자동으로 감반(출력을 낮추는 것)에 들어갔다. 원자로 출력이 줄어든 것은 증기발생기에 냉각재(물)를 공급하는 주급수펌프 2대 중 1대가 고장이 났기 때문이다.

문제가 발생한 주급수펌프는 순환용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멈춰선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주급수펌프 고장으로 원자로 출력은 52.6%까지 떨어졌다. 주급수펌프 고장으로 냉각재 공급이 차질을 빚게 되면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자동으로 원자로 출력이 낮춰진 것이며, 안전에는 영향이 없다고 한빛원전 측은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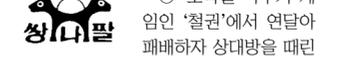
한빛원전 측은 이날 오전 7시10분께 예비 주급수펌프를 가동시켜 원자로 출력을 올리고 있으며, 이날 자정께 정상 출력(100%)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증기발생기 주급수펌프는 3대가 설치돼 있으며 평상시에 2대를 가동하고 있다.

한빛원전 측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빛 6호기 주급수펌프가 갑작스럽게 고장이 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한 원자력 전문가는 이와 관련, “안전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정기 점검 때 주요 부품에 대한 점검과 정비가 좀더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형호기자 khh@

/영광=이준용기자 jlylee@

격투기 게임하다 서로 주먹다짐



○…오라실 격투기 게임인 ‘철권’에서 연달아 패배하자 상대방을 때린

30대 남성과 이를 되받아친 또 다른 남성이 나란히 경찰서행.

○…23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유모(30)씨가 이날 새벽 1시께 광산구 수완동 S오라실에서 게임에 열중하던 박모(30)씨의 목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자, 박씨도 일어나 반격하는 등 생면부지 남성 2명이 오라실에서 주먹다짐을 벌였다는 것.

○…유씨는 이날 집앞에서 술을 마신 뒤 오라실에 들러 게임을 하던 중 뒤늦게 깨어난 박씨와 연달아 패배하자 잇따라 패배하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주먹을 휘둘렀는데, 경찰에서 유씨는 “두 판을 연달아 패하자 화가 나서 주먹이 나간 것 같다”며 패은 후회.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고
2015타경 1155	1	목포시 죽산로40번길 4-2, 8층 806호 [상.아파트]	아파트	62,000,000	최순우법정집행부
2015타경 1551	1	목포시 영동로14번길5, 6층 602호 [상.아파트]	아파트	156,000,000	다들본권익위원회
2015타경 1742	1	목포시 영동로 323, 1층 10층 1001호 [용.상점]	아파트	93,000,000	
2015타경 1803	1	목포시 현산중앙로 87, 305층 3층 305호 [상.아파트]	아파트	82,000,000	
2015타경 2134	1	목포시 삼학로183번길14, 102층 14층 1407호 [상.아파트]	아파트	91,000,000	
2015타경 2783	1	목포시 학남로337번길33, 103층 15층 1502호 [상.아파트]	아파트	44,000,000	주택임차전자와신
2013타경 12632	2	영광군 도요면 신성리 산105-5 2700㎡ [현황]	임야	170,127,600	일괄매각, 기재가
2014타경 2540 [병합]	3	동소 53-2 3653㎡ [탄소유역매각채외]	전	44,650,800	구번(예산소재지)
2014타경 11377	1	무안군 광동면 피서리 809-65 4140㎡ [매각대상인재시외건물] [보리수거시설, 화장실, 소채]	임야	467,820,000	
2014타경 12127	1	신안군 신의면 하동리 산23-1 23107㎡ [분양승인] [불법]	임야	18,485,600	현황임야및일부도
2014타경 13533	1	동소 142-3 1137㎡ [광양지법] [공유자문]	담	2,449,650	일괄매각, 자본매
2014타경 14734	1	목포시 중앙동2가 9-15 56.2㎡ [매각대상인	대	16,635,200	재시외건물매각대상
2015타경 671	1	황평군 황평읍 장년리 1443-11 3466.3㎡	담	41,595,600	농지취득자격증명
2015타경 800	1	신안군 회덕면 동곡리 187 288㎡ [현황임부	대	41,595,600	농지취득자격증명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고
2015타경 800	2	동소 370-7 6258㎡	담	41,302,800	농지취득자격증명
2015타경 1124	1	신안군 회덕면 여운리 26-1 952㎡ [연고미	전	4,664,800	현황임야및일부도
2015타경 1292	1	목포시 서산동 4-114 73㎡ [일반건축물대	대	6,570,000	현황주거나지
2015타경 1629	1	영광군 미암면 남산리 산44 5652㎡	임야	14,469,700	일괄매각, 자본매
2015타경 1902	1	무안군 일로읍 복동리 750-1 452㎡ [불법행	전	15,820,000	현황나지
2015타경 497	1	시흥면거지: 목포시 유달로28번길 8 [서산	중개	30,000,000	보관·영양군상호
2015타경 1179	1	시흥면거지: 목포시 유달로28번길 8 [서산	중개	30,000,000	보관·영양군상호
2015타경 1179	1	시흥면거지: 목포시 유달로28번길 8 [서산	중개	30,000,000	보관·영양군상호
2013타경 12632	1	영광군 학교면 죽동리 41-3 6345.9㎡	공장	1,805,597,920	일괄매각, 재시외
2014타경 16051	1	영광군 학교면 죽동리 41-3 6345.9㎡	공장	1,805,597,920	일괄매각, 재시외
2015타경 732	1	영광군 학교면 죽동리 41-3 6345.9㎡	공장	1,805,597,920	일괄매각, 재시외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고
2015타경 800	5	신안군 회덕면 동곡리 162-4 168㎡ [공유자	농지	4,462,230	건물매각, 재시외
2015타경 2042	1	신안군 암태면 신갈리 542-40 657㎡	담	93,962,000	일괄매각, 이동가